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5년 4월 26일(주일) 제1046호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

함께 만들어요! 더 멋진 세상!



세네갈 본나바마을에서 NGO더멋진세상
봉사단원 김민선 자매와 아이들.

후원, 중보기도, 재능기부 ... 국가와 프로젝트 선택 가능 더멋진마을 조성, 어린이 생명 살리기, 긴급구호 등에 사용

리카르완다, 케냐, 말라위, 북부아프리카(모로코), 아시아(네팔, 미얀마, 인도, 필리핀, 파키스탄, 몽골, 캄보디아), 중남미(콜롬비아, 나카리과), 북한이다. 프로젝트는 긴급재난구호, 어린이 생명 살리기, 생활환경 개선, 학교환경 개선이다. 물질 후원뿐 아니라 중보기도나 재능기부도 가능하다. 재능기부 분야는 농업, 영상제작, 건축, 의료, 교육, 통번역 등이다.

NGO 더멋진세상은 성도들의 후원금으로 더멋진마을 조성사업, 어린이 생명 살리기, 긴급구호, 난민지원, 대북지원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가 열린다. 오늘 온누리교회 모든 예배에서 배부되는 정기후원 약정서에 기입하는 것으로 참여하면 된다. 신규, 재연장, 변경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계좌정보를 작성하면 된다. 후원금은 매월 25일 CMS(후원금 자동 납부)방식으로 출금된다. 후원하고 싶은 국가나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도 있다. 선택할 수 있는 국가는 서부아프리카(세네갈, 기니비사우, 감비아), 동부아프리카(르완다, 케냐, 말라위), 북부아프리카(모로코), 아시아(네팔, 미얀마, 인도, 필리핀, 파키스탄, 몽골, 캄보디아), 중남미(콜롬비아, 나카리과), 북한이다. 프로젝트는 긴급재난구호, 어린이 생명 살리기, 생활환경 개선, 학교환경 개선이다. 물질 후원뿐 아니라 중보기도나 재능기부도 가능하다. 재능기부 분야는 농업, 영상제작, 건축, 의료, 교육, 통번역 등이다.

인천 온누리교회 창립 9주년

감사예배, 사랑의 쌀독 오픈행사

오늘은 인천 온누리교회 창립 9주년이다. 교회창립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풍성한행사가 열린다.

오늘(28일) 11시 30분에 인천 온누리교회 창립 9주년 감사예배를 드린다. 설교는 박종길 목사가 한다. 오후 1시

에는 사회선교 사랑의 쌀독 헌판식 및 오픈행사가 열린다. 5월 3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교인 사랑의 헌혈행사를 한다.

인천 온누리교회는 2006년 4월 30일 문을 열었다. 48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지금은 1,400여 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부흥했다. 인천 온누리교회는 어려운 이웃들의 손을 잡아주는 데 집중하고 있다. 교회 주변 청소, 사랑의 쌀 나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웃리치를 통한 선교에도 앞장 서고 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다음 주 어린이주일 행사 놀거리, 먹거리, 야외예배, 유아세례

어린이주일을 맞아 신나는 행사가 열린다. 다음 주일(5월) 서빙고 온누리교회에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에어바운스를 설치한다. 부천 온누리교회는 어린이들을 위한 '광광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페스티벌이 진행되는 동안 교회주차장은 어린이

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대전 온누리교회는 시청 앞 공원에서 어린이 야외예배를 드린다. 강동은 건물 6층을 어린이 놀이시설로 꾸민다. 2부 예배에서는 유아세례(8명)를 준다. 이외에 다른 캠퍼스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 정지은 기자

IS와 중동의 미래

교회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되어야
중보기도, 난민 지원, 복음 전파 역할



노규석 목사
(온누리M센터)

영악없는 화약고다.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만행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학살이 계속되고 있다. IS는 지난 2월 이집트 콥트교도 학살 영상을 공개한데 이어 19일 에티오피아 기독교인 30명을 살해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난민들도 늘어나고 있다. IS사태와 시리아 내전으로 발생한 시리아·이라크인 난민은 340만 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절반이 어린이다. IS와 중동의 안타까운 현실과 교회의 역할에 대해 짚어보았다.

/ 편집자 주



IS와의 전쟁 여파가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와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의 대리전 양상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테러단체에 불과하지만 IS는 이슬람 국가라고 선언하며, 세계의 수니파 이슬람들이 자신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4년 6월 이라크의 두 번째 도시인 모술(니느웨)을 점령해 스스로 “무함마드 선지자의 정통성을 잇는 이슬람 세계의 지도자 칼리파”라고 자칭하고 이슬람 제국의 부활을 선언했다. 현재 IS가 점령한 영토는 남한의 약 세 배 정도이고, 800만 명 정도가 통치하에 있다.

IS는 수니파 이슬람 이외의 종교와 종파는 모두 극단적으로 배격한다. 이라크 북부 소수 민족인 아지디족에 대한 학살과 노예화, 시아파 모스크와 기독교회를 파괴하고 이들에 대한 무자비한 학살과 약탈로 대외적으로 '충격과 공포'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시아파 민병대들에 핍박당하는 이라크와 시리아의 수니파에 대해서는 보호자를 자처하며 수니파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들은 이슬람 근본주의와 극단주의로 뿔뿔
뿔쳐있다. IS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슬
람의 사리아법을 적용해 무함마드 선지자 이후
칼리파들이 다스렸던 움마이야 왕국(7~8세기,
스페인에서 인도까지 다스렸던 이슬람제국)의
영광을 회복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4월 초 이라크과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이라크 정부군과 시아파 민병대가 이라크 중부의 티크리트 지역을 한 달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IS로부터 탈환했지만, 시아파 민병대의 약탈과 방화가 자행되면서 이라크 정부가 수니파의 민심을 더욱 잃어버리고 있다. 5월에는 모술을 탈환하기 위한 전투가 예고되고 있는데, 티크리트보다 10배가 큰 도시인 모술에서의 전투는 더욱 많은 희생자가 발생할 것이 자명해 보인다.

지옥과 같은 끝없는 전쟁의 터널

IS의 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일단 이

라크 정부군이 이라크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수니파의 민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 미국 역시 차기 대통령 선거에 돌입하면서 지상군 투입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또한 IS와의 전쟁이 수니파와 시아파의 종파 전쟁 성격이 강해서 주변국과 전 세계의 수니파 출신 용병들이 가담하고 있다는 것도 사태를 장기화시키고 있다. 더욱이 IS가 시리아쪽으로 더욱 영토를 확장하고 있고, 북아프리카에서 수니파 급진주의가 확산되면서 최근 튀니지와 리비아, 에티오피아에서도 테러가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리아 인구 절반이 난민 상태다. 이라크 역시 중부와 북부는 수시로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 민간인들과 기독교를 비롯한 소수 종족과 종교인들이 큰 고난을 당하고 있다.

IS와의 전쟁의 여파는 예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라크에서 시아파 세력이 커지면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시아파가 내전을 일으켜 수도를 점령하고 이를 막기 위해 사우디가 지상군 15만 명을 국경으로 배치하고 예멘을 폭격 중에 있다. 이러한 형국은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와 시아파 종주국 이란의 대리전 양상으로 전쟁이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 중동은 지옥과 같은 끝없는 전쟁의 터널로 들어가고 있다. 앞으로 이 중동 대전은 레바논과 바레인으로, 혹은 사우디와 요르단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IS와의 전쟁으로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족이 독립국가로서 자리매김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라크 전쟁의 후유증으로 중동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약화된 상태에서 IS는 그 세력을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넘어 유럽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키우고 있다.

예언된 중동의 영적 부흥 실현되기를

마테복음 24장의 예수님의 예언대로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전쟁은 더욱 증기할 것이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전쟁이 계시록에 예언된 마지막 시대의 전쟁으로 확전될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전쟁과 살인, 죽음과 공포로 무장한 IS세력의 확장에 대해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영적 세력에 대해 분명히 대적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다. 전쟁으로 고난당하는 아랍 기독교인들과 무고한 무슬림들에게는 살 길이 열리도록 중보기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이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라크와 시리아의 전쟁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함께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할 책임이 한국 교회에 있다.

물론 이를 위해 그동안 많은 단기 아웃리치팀들이 시리아와 이라크 난민 사역을 감당했다. 하지만 한국인에 대한 IS의 위협과 납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기에 중동에 단기 선교팀을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신 이미 요르단과 레바논, 터키에 있는 현지 교회들과 장기 선교사들이 이들에 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 있는 선교사와 현지 교회들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라크 전쟁과 시리아 내전, IS 전쟁 속에서 수백만의 무슬림들이 고향을 떠나 낯선 타국에서 난민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이 끝없는 전쟁과 복수를 날고 있는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실망하고 등을 돌리고 있다.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한줄기 소망의 빛을 보는 것은 난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현지 교회들과 선교사들의 사랑과 수고로 인해 수많은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중동에서의 전쟁은 더욱 확대되고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영혼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아랍 교회들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 이사가 19장에 예언된 중동의 영적부흥이 중동의 전쟁들을 넘어서 곧 실현되길 기도한다.

〈2015년 해외 아웃리치 유의사항〉

▷아웃리치 제한 지역

외무부 공지 여행금지지역: 시리아, 이라크,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www.0404.go.kr)

IS테러 위험지역 :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레바논(단 터키의 경우 주요도시(이스탄불, 앙카라, 이즈밀)로 제한해 본부와 협의 가능)

에볼라 바이러스 발병국가: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등 서부 아프리카

▷아웃리치 권장 지역 :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일본, 몽골, 태국 등
▷국내외 정세를 고려해 선교사들과 참가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 모든 이웃리치 팀은 출
발 전 이력서교본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함.

문의: 02-795-9085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출 25:1~9

“죄가 없어지고, 휘장이 찢어져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지배자로서 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들은 모두 태어난 이후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세상에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태어나신 이후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세상에 알려진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오래 전부터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백성들 마음속에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문을 두드리시고, 이 세상에 가득한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죄의 세력을 무효화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세상에 거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글에서 예수님을 ‘진정한 왕이신 그분이 반역한 지역을 다시 점령하기 위하여 들어오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반역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로 죄를 씻기시고, 다시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구약의 역사에 나타나 있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이루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실체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언어를 통해 의미를 깨닫기 전에는 그림을 통해서 의미를 깨닫습니다. 언어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미 본 그림들의 의미를 채워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구약이 그림이라면 신약은 문자에 불과합니다. 외화를 볼 때 그림만 봐서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막이 있어야 합니다. 신약이 자막이라면 화면은 구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지창조의 목적

하나님은 구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통해서도 장차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모세를 통해 만들라고 한 성막입니다.

성막은 장차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거하신다’는 단어를 직역하면 장막 텐트를 치고 산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처럼 독특한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사건은 장막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장막은 ‘거룩한 장막’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회막(만나)는 장소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다”(8절).

장막은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에서 살기 위해 만든 장소입니다.

“거기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것이니 그 장막이 내 영광으로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해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출 29:43-45).

이것이 천지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계획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려는 목적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도달하지 못할 높은 곳에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내려오심을 보십시오.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어디서 말씀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장소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의 청사진을 보여 주셨습니다.

성막이 다 만들어진 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내려오심을 보십시오. 오 하나님은 하늘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은 백성들을 만나실 때 모세를 통해서만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셨습니다. 장소를 정하고 절치에 따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이미지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막의 물품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영적으로 해석 하지는 않겠습니다. 전체적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 재료들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여라.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내 예물을 받아 와야 할 것이다”(2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자원해 드리는 예물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자원함으로 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합니다. 만약 세금을 내고 싶은 사람만 자원해서 내게 한다면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강제로 징수해도 피해야 하고 하는데 자원해서 세금을 낸 것으로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언제나 자원함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자원함이 넘치는 영성입니다.

인생을 움직이는 세 종류의 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능에 따라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마음속 이기심을 따라 한다면 그것은 본능입니다. 아무리 많은 성취를 하고,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겨도 그것이 본능에 충실한 삶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원하지 않지만 법과 제도 그리고 사람들의 눈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는 것입니다. 정말 피곤한 인생입니다.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사람들

의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움직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원해서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스스로 자원하는 것은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겁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류의 삶을 사느냐가 우리 영혼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자원하는 사람들의 예물을 받아 성막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모세도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료들을 보면 싼 재료도 있지만 비싼 재료도 있습니다. 과연 그 재료들을 충당할 수 있을지 두렵고 염려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연약한 생각이었습니다. 모세가 청사진을 받은 이후 백성들에게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릴 사람을 말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기술자가 그만 가져오라고 사정을 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언제나 마음속에 자원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다윗 시대에 가면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 때도 성전을 짓고자하는 백성들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분

둘째, 하나님은 성막에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을 차등적으로 제한하셨습니다. 이것은 거룩함의 차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막은 크게 세 장소로 구분됩니다.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습니다. 뜰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소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차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등을 두셨습니까. 사람을 차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거룩함을 입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입니다. 반드시 거룩함을 입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 다양한 재료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재료 중에 아주 정교하고 고운 실들이 있었습니다. 3절에 금, 은, 청동, 4절에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고운베실이나옵니다.

(13면에 계속)

해외비전교회를 가다
오사카, 교토, 나고야 온누리교회

일본 온누리 비전교회

오사카, 교토, 나고야 온누리교회를 다녀왔다. 일본 온누리 비전교회는 모두 7곳이다. 동북부 우에다, 수도권 도쿄, 야치요, 요코하마, 중서부 오사카, 교토, 나고야에 있다. 일본 온누리 비전교회는 지역사회와 차세대를 섬기면서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다. 영적으로 척박한 땅에서 새 생명이 움트고 있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 맺고 있었다. 일본 온누리 비전교회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여기는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 사람들로 북새통이다. 오사카와 교토를 방문하려는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입국심사를 기다리는 줄이 끝도 없다. 시간이 지나도록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간신히 수속을 마치고 오사카 시내로 향했다. 오사카의 제일 변화가 신사이바시 거리를 거닐었다. 이곳은 식도락가와 쇼핑객들의 천국이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오사카 온누리교회가 있다.

오사카는 일본 제2의 도시다. 예로부터 수륙교통의 요충지였다. 도시 단위 경제 규모로 세계 3위, 도시권 인구 세계 12위로 도쿄와 더불어 명실상부 일본의 경제,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곳이다. 오사카는 일본 전국시대를 종식하고 천하를 제패한 도요토미 히데요시 가문의 정치적 본거지이다. 기독교 박해의 아픔이 서려있는 곳이기도 하다. 1549년 제비에르 선교사가 가고시마에 입항해 복음을 전했다. 그것이 일본 선교의 시초다. 당시 일본은 전국시대 막바지였다. 오다 노부나가 불교를 탄압하고 앞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 기독교를 수용했다. 1600년 일본 기독교는 성도 수가 50~75만 명에 이를 정도로 부흥했다. 당시 일본 인구가 1,500만~2,000만 명이었음을 감안하면 놀라운 숫자다.

오다에 이어 정권을 잡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처음에는 기독교에 관대했다. 가스펠 코넬 신부를 초청해 자신이 건축한 오사카성을 보여주기가 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나가사키에 갔을 때 포르투갈 선교사 코리오 신부가 그를 맞이했는데 긴 칼을 찬 군인의 모습이였다. 코리오 신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포르투갈 군함의 대포와 장비를 자랑삼아 구경시켰다. 오사카성으로 돌아온 도요토미는 곧바로 기독교 포교 금지령과 선교사 추방령을 내렸다. 포르투갈 함대의 위협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다. 도요토미의 추방령에 따라 1597년 나가사키에서 26명의 기독교인들이 처형당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나가사키 26인 성인(聖人) 순교사건'이다.

도요토미에 이어 전국시대의 마침표를 찍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더욱 강화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1612년 3월 도쿄와 오사카, 교토에 금교령을 발표하는데 이어 이듬해 12월에 이 명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1614년 오사카 이바라키 지역의 대표적인 크리스천 다이묘(영주)였던 다카야마 우콘을 마닐라로 추방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가문의 후계자들은 더 철저하게 기독교를 탄압했다. 이 시기 무려 20~30만 명의 순교자가 나왔다. 당시 기독교인 3명 중 1명꼴이었다. 도쿠가와와 에도막부는 세계 교회사에 유례를 볼 수 없을 만큼 잔인한 박해를 계속했다. 1640년 데라우케(모든 서민을 절에 종속시킨 일종의 호적제도), 1659년 50제 감시제도(가정을 한 조로 묶어 서로를 감시하게 한 것으로, 기독교인이 적발되면 남자는 7대, 여자는 4대까지 격리 후 특별감시) 등을 통해 기독교인을 발본색원한다. 예수나 마리아상을 밟고 지나가게 하는 '후미에'를 통해서도 기독교 신자들을 색출했다.

극한으로 내몰리게 된 기독교 신자들은 첩첩산중 오지로 숨어들어 신앙을 숨기고 살아가게 되었다. 그들을 '가쿠레 가리시탄(숨은 기독교인)'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성모상을 관음보살상처럼 만들고, 불교용품에 십자가를 몰래 새겨 신앙생활을 했다.

1919년 가쿠레 가리시탄 마을과 유물이 오사카 이바라키시 센다이지에 발견됐다. 발굴된 유물들을 모아 1987년 '이바라키시립 가쿠레 가리시탄 유물사료관'을 만들어 전시해 놓았다. 이곳에 가면 왜 크리스천들이 이곳으로 숨어들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바라키 시내에서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가면 있다. 곳곳에 세워진 이정표가 없다면 이런 곳에 박물관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외딴 곳이다. 햇빛 한 점 들지 않는 길을 지나야 했다. 자손들에게조차 철저히 비밀로 지켜야 했던 그들의 신앙이 발견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을 입을 닫고 살아야 했는지 모른다.

기본은 큐티와 일대일, 특성 고려한 맞춤형 사역은 덤
일본 교계, 지역사회, 차세대, 가정에 꿈과 희망을



오사카 온누리교회 이영선 목사 부부와 청년들의 모습.

오사카 온누리교회, 차세대, 지역교회 연합, 전도에 집중

오사카 온누리교회는 2000년 4월 창립됐다. 최초의 온누리 해외비전교회다. 일본인 사업가가 하용조 목사에게 상가 건물 3층을 예배당으로 기증한 것이 교회의 시작이다. 하용조牧사는 오사카 온누리교회에 김사무엘 선교사를 파송했다. 김사무엘 선교사는 매 주 서울과 오사카를 오가며 예배를 섬겼다.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섬기면서 오사카 온누리교회의 기틀을 다졌다. 2001년 10월 이영선 목사가 담임목사로 부임해 약 8년 동안 섬겼다. 이영선 목사는 미국과 시모노세키에서 사역을 하다가 올해 2월 다시 오사카 온누리교회로 사역지를 옮겼다.

오사카 온누리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주변 교회들의 반감을 샀다. 대형교회가 들어와 성도들을 뺏아가는 것이냐는 우려 때문이었다. 오사카 온누리교회는 주변 교회들의 의심을 덜기 위해 기본(큐티, 일대일, 예배)에 충신했다. 2008년 목회사관학교를 기점으로 사역이 확장됐다. 처음으로 가정사역을 접하게 된 것이다. 이영선 목사는 가정사역이야말로 일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확신했다. 하나님의 가정사역이 프로그램들을 교회에 도입했다. 큐티와 일대일로 기반을 다

지고 거기에 가정사역을 더했더니 교회가 눈에 띄게 부흥하기 시작했다. 200명의 성도가 목표였는데 400명 가까이 늘었다.

오사카 온누리교회 새신자반을 섬기고 있는 나가오카 아키코 집사는 어머니학교도 열심히 섬기고 있다. 7년 전 어머니학교 세미나를 처음 들은 나가오카 집사는 "바로 이거다"라며 무릎을 쳤다고 한다. 가정이 붕괴되고 있는 일본에 가정사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어머니학교팀을 꾸려 규슈와 나고야 등지로 아웃치도 다녀왔다. 일본인 강사도 생겼다. 그녀는 어머니학교가 더 많은 일본 교회에 소개되어 가정사역이 바로 서고, 나아가 교회와 나라가 바로 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오사카 온누리교회는 3가지 중요한 사역방향을 갖고 있다. 첫 번째는 차세대다. 다음 세대를 짊어질 차세대들에게 세상적인 사고보다 믿음이 먼저 들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재일교포 자녀들은 사춘기에 접어들어서면서 정체성 혼란을 겪는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한다. 크리스천으로서 사회와 나라를 위해 공헌해야 한다는 것도 깨우쳐줘야 한다. 이영선 목사는 6년 만에 돌아온 오사카에서 그 희망을 목도했다. 교회학교 학생이었던 청년이 어엿한 교사가 되어 후배들의 멘토가 되어 주

고 있는 것을 본 것이다. 사랑과 관심을 듬뿍 받은 아이들이 자라서 또 다른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다.

두 번째는 지역교회와 연합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오사카 온누리교회 초창기에는 주변 교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다. 그러나 리브소나타 집회를 함께하면서 주변 교회들과 연합하기 시작했다.

세 번째는 전도다. 특히 새신자들이 쉽게 찾아오는 교회를 만들 생각이다. 문턱이 낮은 교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꿈이다.

이영선 목사는 종교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종교법인화는 교회 명의로 계약하고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은 종교 법인이 되어 있지 않아서 교회 이름으로 계약하지 못하고, 목사 명의로만 할 수 있다. 재정의 투명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영선 목사는 3년이나 걸리는 지루하고 번거로운 심사를 신청했다.

교토 온누리교회 성도들, "전도는 생활입니다"

두 번째 방문지는 교토 온누리교회다. 교토는 천년 가까이 일본의 정치, 문화, 교육의 중심지였다. 일본인들의

역할 ‘선한 영향력’



교토 온누리교회 야마나카 목사 부부와 성도들.

마음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곳답게 도시 전체가 문화재로 가득하다. 일본 국보의 무려 20%가 교토에 있다. 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교토대 등 38개의 대학교가 있다.

교토도 기독교 박해가 심했던 지역이다. 1619년부터 1623년 사이 나가사키와 도쿄, 교토에서 순교사건이 발생했다. 이른바 ‘겐나 대순교 사건’이다. 1619년 교토에서 기독교 신자 52명이 27개의 십자가에 달려 화형을 당했다. 그들 중 무려 11명이 어린이였다. 당시 순교의 흔적을 말해주는 겐나 가리시탄 순교비가 교토 가모가와 강변 길가에 세워져 있다. 열핏 보면 돌비석에 불과하다. 그 돌비석만이 400년 전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어간 순교자들을 기억하고 있다.

교토역은 교토를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거쳐야 하는 곳이다. 세계 각국에서 온 여행객들로 넘쳐난다. 교토 온누리교회는 교토역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다. 교토 온누리교회는 일본 비전교회 중에서 가장 최근에 생겼다. 야마나카 토모요시 목사가 담당하고 있다. 2010년 11월 시작됐다. 주일 11시에 일본어예배를 드리고, 오후 2시30분 한국어예배, 저녁 5시30분 영어예배를 드리고 있다. 주일 새벽 6시30분에 새벽기도회가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교토 온누리교회 주보에는 각종 기도회와 집회, 모임과 세미나 안내로 빼곡했다. 연간 스케줄표도 마련되어 있다.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의 비전과 목표, 주요 행사 등을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있는지 모른다.

교토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상당

히 많다. 교토 온누리교회에도 외국인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일본인과 한국인, 외국인 성도 비율이 무려 4:2:4라고 한다.

교토 온누리교회는 전도에 집중하고 있다. 야마나카 목사를 비롯해 대부분의 성도들이 전도를 생활화하고 있다. 전도폭발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부터 달라졌다. 야마나카 목사는 1992년 미국 유학시절에 전도폭발을 접하고 다시 태어났다고 했다. 일본으로 돌아와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전도폭발을 접목해보려고 노력했다. 당시 일본교회에도 전도폭발 프로그램이 전해지긴 했지만 활성화되지는 못한 상황이었다. 교재도 조악했다. 재번 역까지 한 야마나카 목사는 교토 온누리교회 개척 초기부터 전도폭발 프로그램을 적극 적용했다.

야마나카 목사는 전도에 탁월한 역량이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야마나카 목사가 전도한 사람이 200명이다. 그 중에 144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13명은 세례를 받았다. 교토 온누리교회 성도들도 전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다테미 카즈에 성도(73세)는 전도폭발을 경험하고 삶이 달라졌다고 했다. 전도폭발 훈련을 받고 나서부터는 스스로없이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게 됐다고 했다. 전도폭발을 일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안정맞춤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했다.

핫토리 다케시 전도사도 “교토 온누리교회가 계속 전도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만큼 교토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전도를 생활화하고 있었다.

교토 온누리교회는 창립된 지 5년도 되지 않은 짧은 역사지만 성도 수가

100여 명으로 늘어났다.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교토 온누리교회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연간 150명 이상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10명 이상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목표다. 향후 15년 동안 전도폭발 프로그램을 400개 일본교회에 도입해 연간 만 명을 전도한다는 포부도 갖고 있다. 웅대한 꿈을 품고 있는 교회답게 기도부탁도 잊지 않았다.

“교토 온누리교회는 서울 온누리교회가 낳은 교회입니다. 교토 온누리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요”

**나고야 온누리교회,
무너진 가정 살리는 가정사역에 올인**

마지막 방문지는 나고야 온누리교회다. 신오사카역에서 신칸센을 타고 1시간 남짓 가면 나고야에 도착한다. 나고야는 일본 열도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대도시다. 일본의 히라다. 나고야는 일본 전국시대 3대 무장인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태어난 곳이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천하통일을 이룬 뒤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축조한 나고야성은 오사카성, 구마모토성과 함께 일본 3대 성(城)으로 꼽힌다. 이 같은 이유로 나고야 시민들의 자부심과 보수성이 유독 강하다. 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교토보다 더 보수적인 곳이 나고야다. 기독교 박해 흔적이 어느 도시보다 잔존하고 강렬하게 남아있다.

‘에이코쿠지 가리시탄 유적박물관’이 바로 그런 곳이다. 이곳은 원래 죄인들을 처벌하던 형장이었다. 1664년 기독교인 200여 명이 이곳에서 처형

당했다. 형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이곳에 절을 세우고, 참수된 기독교인들의 공양탑을 세웠다. 가리시탄 무덤과 그들의 유물을 모아 박물관을 만들었다. 솔직히 박물관이라고 말하기 애매할 정도로 규모가 작다. 가쿠레 가리시탄들의 유물 몇 개가 전시되어 있을 뿐이다. 이 근처에 ‘히가시베쓰인’이라는 크고 웅장한 절이 있다. 그곳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참관하고 있는데 에이코쿠지 가리시탄 유적박물관에는 냉기가 가득했다.

썩쓸함과 스산함을 뒤로 하고 나고야 온누리교회에 갔다. 교회는 조용하고 한적한 주택가에 있다. 시끄럽고 번잡한 오사카와 어디를 가나 관광객들로 넘쳐났던 교토와 달리 조용하다.

나고야 온누리교회는 이화다이아몬드 김수광 장로가 회사 2층을 교회 예배당으로 기증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과이민자 케어사역에 힘을 쏟고 있다.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자선장, 가정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열고 있다. 국제결혼 한 커플들의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회복사역과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아버지학교 세미나도 지속적으로 열고 있다.

2010년 열린 나고야 러브소나터를 위해 보수적인 나고야 교계와 협력한 것도 괄목할 만한 결과다. 그때부터 지역교회와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당시 맺은 협력의 끈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정보를 공유하고 사역도 공유하고 있다. 협력도 도모하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중부권 대도시 오사카, 교토, 나고야에 세워진 온누리 비전교회를 둘러보니 감회가 남달랐다. 서울 온누리교회가 그대로 일본에 옮겨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나고야 온누리교회에 새로 부임한 김철희 목사 부부(좌)와 8년간 나고야 온누리교회를 담임했던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부부(우).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요시하라 목사가 담당목사로 부임했다. 그는 2006년 11월부터 8년 넘게 나고야 온누리교회를 섬겼다. 그리고 지난 4일 요코하마 온누리교회에서 5년 넘게 사역하던 김철희 목사에게 바통을 넘겼다.

나고야 온누리교회는 젊다. 젊은 엄마들이 많고, 어린 자녀들도 많다. 한국인과 일본인 성도 비율이 6:4 정도다. 국제결혼 한 커플이 많다. 나고야 온누리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

세 곳 모두 온누리교회 양육의 핵심가치인 큐티와 일대일을 통해 성도들을 양육하고 있었다. 거기에 각 교회가 위치해 있는 지역적 특성을 따라 맞춤형 사역을 실시하고 있었다.

영적으로 메마른 땅 일본에서도 Acts 29 비전이 쓰여지고 있었다. 일본 교계, 지역사회, 차세대들에게 꿈을 노래하고, 희망을 선물하고 있었다. 일본 온누리 비전교회의 역할이 밝힐수록 더더 따뜻하고 눈부셨다.

러빙유 캠페인 2탄 ‘환경운동’

개인 컵(텀블러) 휴대하자!

교회 커피숍서 개인 컵 사용하면 500원 할인



온누리교회가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가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러빙유 캠페인(Loving U)이 5월에도 계속된다. 5월 실천 캠페인은 개인 컵(텀블러) 휴대하기다.

5월 한 달 동안 작지만 큰 환경운동 실천을 독려하기 위한 이벤트도 실시된다. 온누리교회 모

든 커피숍에서 개인 컵을 이용하면 아메리카노 값을 500원 할인해준다.

사회선교본부는 성도들에게 “각종 모임에서 개인 컵을 사용하는 것은 작지만 큰 환경운동 캠페인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일회용 종이컵은 대부분 재활용되지 않고 매립되거나 소각된다. 한 해 동안 소비되는 일회용 종이컵이 120억 개 이상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종이컵을 만들기 위해 연간 약 8만 톤의 천연 펄프를 수입하고 있다. 이는 50cm 이상 자란 나무 1,500만 그루 분량이다. 일회용 종이컵을 만드는 비용만도 1천억이다. 종이컵을 만드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약 13만 2천 톤에 달한다. 그만큼의 이산화탄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나무 4725만 그루를 심어야 한다. 한 개의 종이컵으로 만들어지는 나무가 40년 동안 죽지 않고 자란다면 1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부터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줄이면 좋겠다.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보호 운동에 앞장서는 것도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로 가는 길이다.

문의: 02-3215-3434, 3436

/ 정지는 기자 jji@onnuri.org



일회용 종이컵 대신 개인 컵을 소지하자.

수원 사회선교팀을 소개합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섬기는 수원 사회선교팀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향하는 9개 팀, 50명의 성도들

수원 온누리교회에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역팀이 있다. 그 주인공은 수원 온누리교회 사회선교팀이다. 그들은 날마다 바쁘다. 눈코 뜰 새 없다. 매주 노숙자, 어르신, 이주민, 장애인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 사회선교팀은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9개 사역팀, 50명의 성도들이 구슬땀 흘리고 있는 아름다운 사역현장을 소개한다.

수원 사회선교팀의 활약상

지난 21일(화) 밤 9시, 여기는 수원역. 5명의 봉사자들이 노숙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모였다. 그들은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수원역과 인근 애경백화점에서 노숙하는 이들과 만나고 있다. 지난 겨울에는 내복과 외투, 무릎담요 등을 전달했다. 이번 달에는 끼니를 때울 우유와 도넛을 나눠주었다. 해병대전우회 ‘백합센터’와 함께 사역하고 있어 매우 든든하다.

2008년부터 꾸준히 봉사하고 있는 박윤희 집사는 “하나님께 받은 능력과 힘은 다르다”고 했다. 박 집사는 공동체 순장의 권유로 공활사역에 몸담았다. 사회복지 전공자이기에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작한 사역이 벌써 8년째



수원 사회선교팀의 섬김은 끝이 없다. 사진은 노숙자팀의 밥차 사역.

다. 박 집사는 이제 노숙자팀 조장으로 섬기고 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하는 사역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란 것을 깨달았어요.”

노숙자팀이 이 사역을 5년째 하다 보니 봉사자들을 맞이하는 노숙자들도 생겼다. 봉사자들이 역에 도착하면 한 노숙자가 다기와 반갑게 맞이한다. 노숙자팀은 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 배식 봉사도 한다. 이를 하여 ‘수원역 밥차 사역’이다. 200인분의

식사를 준비한다.

수원 사회선교팀 소속 성도들이 실천하고 있는 사랑 나눔은 이뿐만이 아니다.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 아제(25일)는 사회선교부 사역지원팀 성도들이 지적장애인공동체 참사랑학교 장애인들과 함께 ‘2015용인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 용인시에서 주관한 이번 마라톤대회는 10km 또는 하프코스를 돌아오는 코스였다.

/ 정지는 기자 jji@onnuri.org

간증



더 도와드리지 못해 미안해한다

/ 김태신 집사(사회선교팀장)

수원 사회선교팀에는 50명의 팀원들이 있다. 팀원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안타까움과 공허이 충만하다. 더 도와드리지 못해서 미안해한다. 그 마음을 볼 때마다 은혜를 받는다. 수원 사회선교팀의 전신은 공활사역팀이었다. 사실 나는 공활사역에 대한 마음이 없었다. 당시 팀장님이 내게 공활사역팀에서 찬양을 인도해줄 것을 요청해서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벌써 5년 전이다. 지금은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 노숙자, 장애인을 바라보던 나의 시선이 바뀌었다. 안타까운 마음보다 꺼리는 마음이 먼저 들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 노숙자 사역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이웃이라는 것이 마음에서부터 느껴진다.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지금 수원 사회선교는 팀원들 위주로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더 많은 성도들이 동참했으면 좋겠다. 섬기고 있는 기관과 이웃들을 공동체나 순에 연결시켜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다.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선교가 되기를 바란다.

수원 사회선교팀은

노숙자팀, 새사람 사역팀, 독거노인팀, 다문화사역팀, 라합의집팀, 반찬봉사팀, 사역지원팀, 성미관리팀, EM판매봉사팀이 있다. 총 9개 팀이 꾸준히 사역하고 있다. 노숙자팀은 한 달에 두 번 무료 배식과 야간사역을 한다. 새사람사역팀은 춘천소년원을 섬기고 있다.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소년원을 방문해 예배드리고 세례도 준다. 독거노인팀은 독거노인들에게 사랑의 쌀과 도시락을 전달한다. 때로는 말벗이 되어주기도 한다. 다문화사역팀은 외국인 노동자쉼터와 새터민들을 지원한다. 반찬봉사팀은 화성 마도 지역 독거노인들을 위해 반찬봉사를 한다. 사역지원팀은 미자립 아동센터와 장애인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라합의집팀은 성매매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제는 관계전도가 답이다

평택 전도스쿨 2기 수료 ... 24명 전도자로 거듭나

“나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딤후 4:2).

전도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있다. 주인공은 평택 온누리교회 전도팀(이하 평택 전도팀)이다. 평택 전도팀이 지난 3월 한 달 동안 다섯 번에 걸쳐 전도스쿨을 진행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타교회 성도 1명을 포함해 총 24명의 성도들이 전도자로 거듭났다. 이번 전도스쿨은 ‘관계전도’를 집중적으로 배우고 나누는 시간이었다. 관계전도는 전도대상자의 감정을 읽고, 그들과의 접촉점을 찾아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다. 가족, 친척, 친구, 지인, 직장 동료 등이 전도대상자이다.

이번 전도스쿨은 ‘복음은 관계를 타고 움직인다’를 주제로 5분 전도 개요 및 시연, 관계 맺기, 상황 및 대상에 따른 접촉점 찾는 방법 등을 배웠다. 이론만 배운 것이 아니다. 매 시간 상황에 따른 전도 성공 사례 간증도 나눴다. 이론과 실재를 같이 배우면서 관계전도에 대한 막연함을 덜었다.

박지수 성도는 “전도스쿨에 참석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했고, 이경연 성도는 “가족과 이웃은 물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전도스쿨 수료 소감을 밝혔다.

노방전도에서 관계전도로

평택 전도팀은 2012년 1월 결성됐다. 전도에 뜻을 품은 평신도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었다. 매주 목요일 평택역과 공원 등지를 돌며 전도지와 온누리 신문을 나눠주며 노방전도를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평택박애병원’에서 환자들과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시작했다.

평택 전도팀의 꿈과 비전이 더욱 풍성해지고 있다. 그동안 해오던 노방전도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주변 사람을 전도하는 관계전도에까지 눈을 돌



평택 전도스쿨 2기 수료생들.

렸다.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가까운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다. 평택 전도팀 박영진 팀장은 평소 가족과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번 전도스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해야 행복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가족의 달 5월에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큰 선물이 어디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평택 전도팀이 관계전도를 주제로 스쿨을 연 이유다.

전도스쿨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끝이 아니다. 전

도스쿨 과정을 끝낸 훈련생들이 ‘하나님의 보물창고 123 중보기도’를 실시하고 있다. 자신이 적어낸 전도대상자들을 위해 하루에 두 명씩, 삼일동안 중보기도하는 것이다. 훈련생, 스태프, 교역자도 동참하고 있다. 기도의 3겹줄을 만들었다. 중보기도하면서 전도대상자들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선물을 하고, 식사교제도 한다.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전도대상자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목표다.

조계진 성도는 “가까운 사람을 전도하다 실패해서 복음을 전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전도스쿨을 통해 그들을 다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용

기가 생겼다”고 말했고, 송미선 성도는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린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가족과 친척, 친구들을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한국의 복음화율이 20%가 넘는다. 옛날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누구나 한번쯤 교회와 복음에 대해 들었다. 이제는 관계전도가 답이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부담감에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보는 게 어떨까. 평택 전도팀처럼 말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목회칼럼 박성천 목사(평택 온누리교회)

형언할 수 없는 감동 ‘외국인 근로자 사역’

평택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한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가치를 타고 지나쳤을 뿐 생긴 처음 오는 곳이라 처음에는 많이 낯설고 조금은 두려웠었다. 하지만 해외비전교회에서 귀국한 나로서는 내 나라라는 이유만으로도 편안했다.

지난 3년 동안 평택 온누리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맡아 섬겼다. 그 중 많은 은혜와 감동을 준 사역이 바로 외국인 근로자 사역이다. 전에도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했었지만 평택에서의 외국인 사역은 새로웠다. 나그네 되었던 나의 모습이 나그네인 그들에게 그대로 투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평택 온누리교회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몽골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어 예배는 매주 평택역 가까이 위치한 셀터에서 드린다. 60여 명의 인도네시아인들이 초청, 경기도관에서 찾아온다. 주중예배, 토요일 저녁예배도 드리고 있다. 인도네시아 현지인 목사님 내외분은 매일 인근 공장과 시내, 평택역을 찾아가 외국인들을 전도한다. 그리고 셀터를 운영해 일시적으로 직장을 잃어 갈 곳이 없거나 사고로 다친 사람들이 잠시 머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주일 오후에는 축구를 같이하며 교제를 한다.

사랑은 나눌 때 더 커진다는 것을 한국어반을 섬겨주시는 집사님들의 삶을 통해 배운다. 몽골과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위해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한국어반을 섬겨주시는 집사님들이 계신다. 처음에는 두려움 반, 떨림 반으로 오셨었는데 이제는 ‘한국어 교사 자격증’ 공부하는 분들이 계속 늘었다. 섬김을 통해 사랑 나눔의 지경이 확장되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나는 해외비전교회에 복음을 전하러 가고, 그 땅의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받은 것이 더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이곳에 무엇인가 주려 온 존재로 보기보다 받으려 온 존재로 보는 시각이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받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고 있다. 그들이 뜨겁게 눈물로 예배하는 모습, 변화되는 모습, 고국에 돌아가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 애쓰는 모습 등 그들은 우리가 잊고 있는 복음의 능력과 예배의 사모함이 어떤 것인지 보여 주고 있다.

선교지에서의 예배는 화려한 악기와 음향 장비가 없어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이곳의 외국인 근로자 예배가 그렇

다. 그들의 가난한 마음, 외롭고 낯설고 힘든 마음을 온전히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거기에 우리의 나눔과 섬김이 더해진다. 외국에서는 한국 음식 한번 먹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한국 사람끼리 모여 안 되는 언어로 어떻게 축구장을 빌려 공 한 번 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에너지를 주는지를 너무나 잘 안다. 지금 이곳 평택 외국인 근로자들도 이런 힘과 기쁨을 평택 온누리교회를 통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고 깊은 보람을 느낄 뿐이다.

무슬림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분식점에 들러 식사를 하던 때가 기억난다. 그들을 위해 식당 아주머니께 햄을 빼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그들을 챙겨주었다. 그 작은 배려를 그들은 무척이나 고마워했다. 그리고 다시 교회에 오고 싶고 계속 교제하고 싶다고 했다. 그저 햄 빼달라고 했을 뿐인데... 우리가 하는 일이 크거나 대단한 힘이 드는 것이 아니다. 친절함 말과 따뜻한 시선이 그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채울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와 함께 해주니 고맙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린다. 할렐루야!

청년들을 만나다

청년부흥의 중심 ‘길공동체’

젊은이들을 위한 도시선교와 직장선교

길(GIL)공동체는 2007년 10월 21일 창립되었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와 손을 잡고 강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평생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수 4:24)는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다.

GIL은 ‘God Is Love’의 약자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의미다. 길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발견하라는 소망도 담겨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시작된 길공동체는 한성대를 거쳐 지금은 대학로 동숭아트센터 2층 이룸(e-room)에서 예배드리고 있다. 예배처소를 이룸으로 옮기면서 길공동체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청년부흥의 중심(Core: Challenge, Overflow, Relationship, Effect)이 되는 것이 길공동체의 새로운 비전이다.

청년부흥의 중심이 되기 위해 길공동체는 직장선교와 도시선교에 집중하고 있다. 길공동체 예배처소는 젊은이들의 문화공간이자 중심지인 대학로에 있다. 길공동체 지체들은 이러한 지리적 특성을 살려 청년들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선교사가 되겠다는 당찬 포부를 갖고 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명동 홀리스타와 파주보육원 ODO(One Day Outreach), 직장인 성경공부를 하고 있다. 날마다 캠퍼스와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다.

파주 보육원 ODO를 가다

길공동체는 파주 보육원으로 ODO를 간다. 길공동체 지체들이 자주 찾아가고 사랑하는 곳이다. 길공동체 지체들은 보육원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권혜령 지체는 모태신앙이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는 못했다고 한다. 예수님은 그런 그녀를



길공동체 청년들이 파주 보육원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기다려 주셨고 결국 만나주셨다. 그녀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었다. 때마침 친한 동생의 권유로 파주 보육원에서 봉사하게 되었다.

“낮기림도 심하고 표현도 잘 못하는 제가 폐를 끼치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 마음을 열어주었어요”

그녀는 아이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었다. 지금은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신이 대견하다고 했다. 그녀는 파주 보육원을 ‘섬기러 왔다가 은혜 받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그녀에게는 간절 한 소망이 하나 있다.

“앞으로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딸이 되고 싶어요. 항상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송다운 지체는 중국에서 유학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처음 이웃리치를 간 곳이 보육원이었다. 보육원을 다녀온 이후 그곳이 계속 생각났다. 때마침 길공동체에 파주 보육원 봉사팀이 꾸려졌다. 그녀는 지체 없이 지원했다.

그녀는 처음 파주 보육원 아이들을 보고 “이 아이들에게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한 달에 한번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더 해줄 것이 없는지 고민했다. 그러다 우연히

다른 봉사팀들의 사진을 보게 되었다. 프로그램 활동과 간식을 나누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 사진을 보면서 그녀는 속이 상했다. 자신은 그렇게 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이었다. 그때 하나님이 그녀에게 QT를 통해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말하곤”(행 3:6).

그녀는 아이들에게 많은 지식과 값비싼 선물을 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만은 꼭 선물하겠다고 결심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청년, 하나님을 만나다 양지훈 형제

길공동체는 사랑과 소망 그리고 감사

우리집은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다. 서울에서 일산으로 이사를 가면서 우연한 기회에 동네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그때부터 우리 집은 예수님을 믿는 집이 되었다. 학창시절에는 교회를 학교나 학원을 다니듯 다녔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구원의 확신도 분명하지 않았다. 친구를 만나서 놀기 위해 교회를 나갔다. 친구들이 하나둘 교회에서 멀어지다보니 나도 자연스럽게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했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동생과 함께 대학부 예배에 몇 번 가보긴 했지만 적응하지 못했다. 부모님 손에 이끌려 억지로 성인예배를 드리곤 했다. 억지로 교회에 다니던 도중 하나님께서 내게 청년부 예배에 가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 대학부 예배에서 길공동체에 대해 이야기했던 생각이 났다. 당시 길공동체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예배드리고 있었다. 하나님은 내 발로 길공동체를 찾아가게 하셨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다른 지체들과 삶을 나누게

되었다. 지체들의 삶에 대해 들으면서 ‘그렇게 힘든 생활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절대로 그런 고난을 견뎌내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지체들과 내가 다른 것이 하나 있었다. 지체들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다. 나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길공동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점차 알아갔다.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을 견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도 알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한편으로는 나에게 다른 이들과 같은 고난이 없었던 것에 감사했다.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도 생겼다. 길공동체를 통해 나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 길공동체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예배드리고 있다. 비전홀에서 한성대학교를 거쳐 대학로 동숭아트센터에서 예배드리고 있다.

동숭아트센터 공사가 한창일 때 주일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매

주 토요일마다 예배처소를 청소했다. 새로운 예배처소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졌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로 세워진 귀한 예배처소를 준비하고, 그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했다. 길공동체에서 양육 받던 내가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해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뻐했다.

나는 길공동체에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했다. 예배를 통해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예배를 사모하고,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고 싶은 소망이 생겼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청년 섬기는 주의 종인 내 삶의 목표다.

길공동체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다.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해 주는 곳이다. 성경지식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해주는 공동체다.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하는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알게 해준 길공동체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신앙의 선배를 만나다

“목자가 양을 두고 어딜 가겠나”

4대 독자 이유택, 예수 만나 목사가 되다
(1905-1949)

이유택 목사는 이퇴계 선생의 후예다. 1905년 1월 9일 경북 안동군 도산면 운곡동에서 태어났다. 그는 4대 독자에 유복자다. 14살 나이에 일찍 조혼한 그는 15세에 자녀를 낳았다.

“네가 그토록 아소(예수)를 믿으려면 할 수 없다. 4대 독자이지만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식은 그대로 살려둘 필요가 없다.”

이유택 목사가 어린 시절 예수를 만나 집안이 발각 뒤집혔다. 그는 집안에 있던 모든 신주단지 등을 깨내 불태워버렸다. 가족들은 이유택이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면서 그를 처형하기로 결정했다. 명석말이를 하고 발로 밟아 구타했다. 그러던 중 가족들 간의 의견이 갈렸다. 어떤 이는 그대로 죽이기는 애석하다. 또 어떤 이는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여곡절 끝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그가 크리스천이 된 이유는 김 선생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서부터였다. 보통학교에 다니던 그는 김 선생에게 예수에 대해 전해 들었다. 그렇게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딸 셋을 두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문에서 쫓겨났다. 그는 스스로 학비를 벌고 처자식들을 먹여 살리려고 온갖 고생을 다했다.

예안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24년 나이 20세에 숭실중학교에 입학했다. 그곳에서 민족주의자 조만식 선생을 만났다. 조만식 선생에게 신앙뿐만 아니라 학문을 배우며 철저한 민족주의자로 성

장해나갔다. 1929년 숭실전문학교에 입학한 이유택은 당시 교장이던 매륵 박사에게도 신임을 얻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택 목사는

1933년 숭실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던 이유택은 당시 신현교회를 개척하고 전도사를 물색 중이던 길선주 목사의 눈에 띈다. 교회 김인서 장로의 천거로 이유택은 신현교회 전도사로 첫 목회를 시작했다. 이후 평양신학교에서 면학하다가 1937년 32회 졸업생이 됐다. 같은 해 평양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신현교회 목사로 부임했다.

당시는 일제강점기였다. 신사참배가 가결되었을 때 이유택 목사는 주기철 목사와 함께 금식기도를 하면서 통탄하며 절규했다.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벌이고 끝까지 대항했던 이유택 목사는 1938년 의성 농우회 사건(일제가 농우회를 탄압하기 위해 다수의 기독교 지도자를 체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 주기철 목사와 함께 경북 의성경찰서로 잡혀가 6개월 동안 모진 고문을 당했다.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될 정도 끔찍한 고문이었다. 앞선 데 났던 격으로 그가 출옥했을 때 사역하던 신현교회가 폐교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택 목사는 굴하지 않았다. 해방 이후 신현교회를 재건했고,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 입구에 위치한 이유택 목사 순교기념비.

치는데 몰두했다. 그때부터는 공산당의 탄압이 시작되었다. 주변인들은 그에게 월남할 것을 권유하지만 그는 단호히 거부했다.

“500명의 양떼를 버리고 갈 수 없다. 목자가 양을 두고 어딜 가겠나. 교회를 끝까지 사수하겠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6개월 전 그는 공산당에게 문제의 목사로 낙인찍혀 검거되었다. 그때 이

유택 목사는 수요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공산당원들은 이유택 목사를 붙잡고 조사할 것이 있다며 끌고 갔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가족과 교회 성도들에게 이별의 말 한마디 전하지 못했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내 인생 한 권의 책 김재승 전도사(서빙고 차세대)

엔도 슈사쿠의 <침묵>을 읽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고민과 민족스럽지 못한 현재의 삶으로 인해 하나님께 불만을 안고 살

아가던 20대 중반 어느 날 각별하게 지내던 선배와 커피 한 잔 마시며 내 마음을 털어놓았다. “당최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아무리 돌려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아.”

나의 말을 가만히 들던 선배는 그날 밤 자신의 책꽂이에 꽂혀있던 책 한 권을 뽑아 나의 자취방으로 찾아왔다. 그 책은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었다. 이 책의 시작은 어둡고 암울하다. 포르투갈 예수회에서 일본에 파견한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背敎)하였다는 내용이다. 그 사람은 일본에서 선교활동한지 33년이나 된 주교였다. 높은 지위를 가진 신부였다. 충격적인 소식이 로마 교황청과 포르투갈 전역을 휩쓸자 로드리게스 신부는 결심을 한다. 교회와 페레이라 신부의 처육과 굴욕을 씻어내겠노라고 로드리게스는 일본에서 잠복선교를 결정하고, 오랜 항해를 거쳐 극적으로 일본 땅을 밟게 된다. 그가 밟은 일본 땅은 녹록한 곳이 아니었다. 당장에 의식주를 해결하기도 어려웠다. 무엇보다 서양인 선교사들을 받아들이는 일본인들은 마음 문을 열지 않았다. 그들이 마

음을 여는 것은 목숨을 내걸어야 할 만큼 치열한 싸움이었다. 위협과 위기 속에서도 로드리게스의 선교활동은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느 일본인의 밀고로 로드리게스와 일본인 개종자들은 모진 고문을 받게 된다. 이때 일본 군인들이 로드리게스에게 제안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그려진 성화를 밟고 지나가는 배교 행위를 하면 저 멀리 바닷가 한 가운데에 묶여있는 일본인 개종자들의 목숨을 살려주겠다는 것이다. 자신 때문에 죽음의 문턱까지 간 개종자들을 생각하니 배교를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지만 반대로 배교를 하는 것은 신부이자 선교사인 그에게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서 로드리게스의 귓가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밟아라, 성화를 밟아라. 나는 너희에게 밟기 위해 존재하는 나. 너의 발이 아플 것이니 그아 품만으로 충분하느니라.”

책을 덮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했다. 당신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음

성은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큰 사랑의 울림이었다. 자신을 믿기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만 하는 신도들을 위해서 가까이 자신을 희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신성한 존재이지만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고 로드리게스의 발에 밟히기를 결정했다. 그 결정은 2000년 전 십자가를 지기를 결정했던 그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았다.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답답하고 어려운 순간이 많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다.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의심하게 만드는 사건들도 있다. 로드리게스의 심정처럼 도무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결정하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런 순간에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해 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다.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오늘도 속삭인다.

“밟아도 좋다. 밟아도 좋다.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나는 존재한다.”

목사안수 받았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 달려가는 중



박대원 목사(대학청년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 14년 전, 목회자의 소명을 처음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을 관통했을 때의 은혜와 감격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제 목사가 되어서 다시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와 이재훈 담임목사님,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해서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사랑과 은총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달려가는 종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마음 본받아



홍기완 목사(대학청년부)

먼저 부족한 중을 부르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낮은 곳에 시선을 두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활보하고 굽주린 자들과 함께 하였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겠습니다. 평생 저의 몸을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옵는 그날까지 ‘낮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선한 목자가 되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진실하고, 거룩하고, 겸손한 목회자



정현석 목사(차세대)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 많은 저를 목사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교회와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처음 부르셨을 때의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기억하고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며 살겠습니다. 목사의 직분을 허락하셨으니 전하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진실된 목회자, 늘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있는 거룩하고 순결한 목회자, 낮은 곳에서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는 겸손한 목회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학청년부 ‘Acts29 Movement’ 실시

국내 미자립교회와 사회기관 섬기는 사역

대학청년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Acts29 Movement’가 세상에 섰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Acts29 Movement는 국내 미자립교회와 도움이 필요한 사회기관을 섬기는 사역이다. 대학청년부 지체들이 낮은 곳,

더 낮은 곳을 섬기기 위해 뜻을 모아 시작했다. 두 달 전부터 대학청년부 자체 363명이 국내 미자립교회나 사회기관에서 봉사 활동하고 있다. 공동체 청년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차세대 교사, 찬양인도, 반주, 싱어,

한국어 교육 등으로 섬기고 있다.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온누리교회 청년들의 헌신적인 섬김에 칭찬이 자자하다. 해당 미자립교회와 사회기관에서 온누리교회 청년들의 섬김을 환영하고 있다.

문의: 02-570-7451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CMN 여름 아웃리치 참가자 모집

CMN(의료선교부) 여름 아웃리치 참가자를 모집한다. 의료인은 물론 비의료인도 참여 가능하다.

CMN 본부는 “항공권, 사역 내용 조율 등이 필요해 지금부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CMN 여름 아웃리치는 7월 14일 라오스비엔티엔으로 떠나는 마하나임과 BEE팀을 시작으로 살롬팀 7월 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토브팀 8월 1일 러시아 우스리스크, 드림팀 8월 초 인도네시아 I지역, 마노아팀 8월 8일 필리핀 마닐라, 본부는 8월 15일 르완다를 간다.

자세한 모집내용은 해당 팀으로 하면 된다.

문의: 마하나임과 BEE팀(010-7236-4664)

살롬팀(010-7457-0327)

토브팀(010-2309-8768)

드림팀(010-4230-1474)

마노아팀(010-7236-4664)

본부(010-2309-8768)

미자립 교회 - 팀사역(매주/격주)

공동체	교회	교단	지역	규모(성인/차세대)	사역	인원
여호수아	주님의새교회	통합가임절차중	서초구	70명/25명	예배 싱어, 교회학교 교사	11명
요셉	서울대병원교회	통합	종로구	25명/20명	예배 섬김, 교사, 환우병동심방	11명
하늘	삼성교회	통합	영등포구	35명/0명	예배 및 차세대 전도	5명
SNS	한마음교회	독립	마포구	5명/2명	찬양 및 예배, 전도, 특별행사지원, 교사	5명
허브	반석중앙교회	통합	안양시 동안구	30명/3명	찬양 및 예배, 전도, 특별행사지원, 교사	5명
W	남서울교회	독립	관악구	20명/1명	(격주)예배안내, 반주 노방전도	7명
총계		교회			6개	44명
		인원				

분기당 1회 이상

공동체	교회	교단	지역	규모(성인/차세대)	사역	인원
하늘	임마누엘교회	통합	양주 불천동	5명/0명	(분기당1회) 예배 섬김 및 봉사	30명
W	진중교회	통합	남양주 조안면	70명/30명	(월1회) 어린이사역 및 전도	6명
총계		교회			2개	36명
		인원				

분기당 1회 이상

공동체	기관명	소재지	사역	봉사횟수	인원
허브	신림동주사랑공동체	관악구 신림동	베이비박스사역	매주	8
여호수아	남대문5가마을쪽방촌	종로 남대문	쪽방촌 어르신 사역	매주	17
여호수아	안산M센터	안산시 원곡동	베트남 한국어 교육	매주	5
여호수아	안산M센터	안산시 원곡동	캄보디아 한국어 교육	매주	5
J4U	하나원	안산시 단원구	탈북청소년 일대일학습	매주	7
요셉	espresso room cafe	서울 성동구	외국인 유학생 사역	월1회	15
W	애란원	경기도 평택시	미혼모케어	월1회	10
길	파주보육원	파주시 법원읍	청소년케어	월1회	23
요셉	도란도란	관악구 신림동	지적장애인예배, 식사,교재	월1회	15
요셉	이태원라파의집	이태원	지적장애인예배, 식사,교재	월1회	15
허브	청운노인복지관	동작구 상도3동	어르신 섬김	월1회	10
허브	청운보육원	동작구 상도4동	청소년공부방섬김	월1회	10
갈렙	남양주시온천양의집	경기도 남양주시	장애인섬김,예배	월1회	20
갈렙	동대문 쪽방센터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 방문섬김	월1회	20
J4U	안산M센터	안산 원곡동	캄보디아 예배 섬김	월1회	10
여호수아	동두천연합청소년돌봄	동두천시 신천로	지역 비행 청소년사역	월1회	15
여호수아	일산천사의집	일산 고양동	지체장애인 식사, 케어	월1회	13
여호수아	명진 들꽃보육원	강동구 천호동	청소년 및 양육	월1회	23
여호수아	안산M센터	안산시 원곡동	인도네시아 열린예배섬김	월1회	7
W	하나원	안산시 단원구	탈북자 예배	월1회	10
요셉	구세군	서대문구 충정로	후생원청소년,아동부예배	월1회	15
여호수아	하나원	안산시 단원구	탈북자 예배	분기별1회	10
총계		기관		22개	283명
		인원			

축하합니다

4월 세례자

■서빙고

임영중 560723
김양원 700114
김진석 830222
유인경 820810
▷ 입교
김귀영 851109
▷ 유아
박서원 140910
박이호 최승연
권시은 140709
권대성
후지도도 카나코
김시은 140514
김재형 이희진
김이찬 140208
김효진 박재연
문예슬 140930
문상민 김세희
배예린 131031
배영규 홍소라
엄태민 140411
엄찬용 이조앤
오예석 140325
오세필 김현희
유승우 130513
유민하 소속임
이민욱 130817
이재선 김현성
이수아 130627
이유중 고지연
이지원 130523
이윤일 김태연
임채아 130615
임경택 이진희
정라엘 130518
정동현 심소애
최윤서 140827
최창영 이지선

■특별한 초대

위희경 790910
▷ 유아
이서연 130614
이성준 장현진
김승기 900125
김형수 790522
손해근 541118
이규원 861114
이 연 790317
이용선 81032
이현재 820911
정희숙 710217
최숙자 410814
▷ 입교
최유라 891025
▷ 유아
곽라은 130413
곽창엽 최정현
김주원 141015
김태윤 윤진실
김 준 140524
김형수 이용선
안준서 131127
안기춘 박세운
이리원 121210
이승환 이교은
이영현 130513
이동진 박수경
정지율 140426
정수영 이소형
최지원 130418
최동욱 강주연
한서영 130621
한승규 구민정
한서진 130621
한승규 구민정
한지호 140317

한병학 왕미나

조규배 백종립
■부천
박순철 611219
▷ 유아
문시은 130617
문하은 130617
문하은 정은주
문하은 130617
문하은 정은주
안도현 140619
안대성 최민정
이로이 150110
이훈재 허은영
이세현 140425
이창근 임지영
■수원
김진철 481126
김귀래 520916
▷ 유아
공지태 120704
공세진 정은희
■남양주
김순종 640321
이경순 830606
▷ 유아
김지안 140314
김경훈 김지은
김현규 140228
김희국 이미희
▷ 입교
권시현 000105
최명훈 990530
■인천
안병훈 760415
임규호 220529
▷ 유아
조주원 140322

조규배 백종립

■양지
서민정 010618
우다연 000113
정재영 770622
주만재 001227
▷ 입교
박한빈 001020
박현성 001011
원희연 001028
차건무 000419
▷ 유아
구분하 140611
이루아 140729
임은솔 141013
채하임 140703
■대학청년부
요셉
이진수 840429
하늘
이연주 961222
▷ 입교
이자민 970120
W
박소미 930407
김정욱 910905
SNS
박스람 850114
허 혁 840925
민지현 800527
김혜원 810222
손다솜 890311

제1046호 | 2015년 4월 26일(주일)

■ 유아 세례 간증

계획하셨고,
이 땅으로 인도하셨다

/ 아이: 유승우 부: 유민하 모: 소옥임

첫째가 걸음마를 떼기도 전에 둘째가 생겼다. 임신 초기에 많이 당혹스러웠다. 한 달간 지속된 출혈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었다. 첫째도 모유수유를 중단하고 분유를 먹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아직 준비를 하던 남편은 가정을 돌보는데 부담을 느꼈다.

나는 임신 중 잦은 스트레스로 체중이 감소했다. “태아에게 문제가 생기면 모두 아인이 아빠 때문이야”라며 신경질적인 말도 내뱉었다. 임신 막바지에 이르러 평택에서 서울로 이사했다. 시할머니 장례까지 겹쳐 둘째를 낳을 때는 몸이 많이 버거운 상태였다. 그래서인지 둘째 승우를 낳을 때 통증이 심했고, 응급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원원에서 삼일 췌 쉬고 있는데 소아과 선생님이 승우의 심장에서 잡음이 들린다고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셨다. 심장에서 잡음이 들린다는 것은 ‘선천성 심장병’일 수도 있다고 했다. 아이를 큰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시켰다. 하루에 두 번 면회를 올 때마다 마음이 좋지 않았다. 승우를 가졌을 때마다 압박처럼 하던 말들이 떠올랐다. 모든 것이 내 탓인 것 같았다. 다행히 승우의 심장 구멍은 작아졌고, 위치도 나쁘지 않아 지속적으로 진료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 되었다. 보통 심장에 구멍이 있으면 아이가 힘들어하고, 발육상태도 좋지 않다고 하는데 승우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잘

성장하고 있다. 승우의 세례식을 준비하면서 지난 2년을 되돌아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생명은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큰아이 백일 즈음 친정아버지께서 폐암으로 돌아가셨다. 정신적으로 방황을 했다. 그 시기에 둘째를 임신해 심신이 매우 고단했는데 이제와 돌이켜보면 생명을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승우를 무척이나 사랑하신다는 것과 승우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승우가 믿음의 가정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님과 삶을 나누며 하나님이 승우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깨닫기를 기도한다.

승우를 통해 우리 부부를 이끄실 하나님의 계획도 기대한다. 그 모든 과정이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과 기쁨이 가득할 줄로 믿는다. 아이가 자라고, 생각이 자랄수록 우리 부부가 기도해야 할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질풍노도 시기를 지날 때면 눈물의 씨앗, 통곡의 울림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계획하셨고, 이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기도한다. 승우의 세례식이 우리 부부가 다짐하고, 약속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외국어 일대일사역자학교 수료 간증



또 다른 시작이다

/ 강호천 성도(영어부 수료)

작년 8월 집사람이 나에게 온누리신문을 보여줬다. ‘세계로 가는 일대일’이라는 타이틀로 소개된 외국어일대일사역자학교 모집 기사였다.

마침 한국어 일대일양육 과정이 끝나가고 있을 때였다. 영어 일대일 교재와 교육과정을 찾고 있었던 참이라 곧바로 등록신청을 했다.

나는 한국에 오기 전 홍콩의 영어교회에서 오랜 기간 예배를 드렸었다. 그 곳에 제자양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싶은 바람이 있었기에 이 과정이 아주 유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이 시작되고 숙제를 따라가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우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영어와 한글로 된 〈생명의 삶〉으로 매일 아침 큐티를 했다. 영어예배 주일설교를 매주 듣고, 요약도 했다.

그중에 나에게 독후감 과제는 성가시고 지루하기도 했다.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Talk & Talk 온누리교회 25년〉, 〈Multiply〉, 〈재생산을 위한 출생〉 등 5가지 책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해야 했다.

성가시고 지루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책들을 통해 온누리교회 목회철학과 역사를 이해

할 수 있었다.

특히 〈재생산을 위한 출생〉은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새신자 사후관리(follow up)의 중요성을 배웠다. 모든 사역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크리스천의 주된 목적은 재생산을 통한 제자 확대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조원들의 열심과 협력 또한 좋았다. 우리 조는 숙제 확인과 제출에 있어서 정말 철저하게 따르고 지켰다.

암기한 성경구절도 서로 낭독해 확인했다. 교재를 이용해 나눔으로써 이해와 경험의 폭을 넓혔다. 가장 나이 많은 그룹이었지만 숙제들을 누구보다 잘 해오는 성실한 조였다. 남산 산행 등을 통해 교제도 풍성하게 나누었다.

길고 의미 깊은 여정이 끝났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시작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잘 실현해 주시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노력하고 도전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 과정을 위해 애쓰신 목사님과 장로님, 스테프들의 귀한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 새사람사역팀 간증



할렐루야! 그 형제가 변화되었다

/ 박찬빈 장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말씀하셨다. “낮은 곳 더 낮은 곳에서 섬기라.” 그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기로 했다.

주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다. 여주에 있는 소망교도소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게 되었다. 주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귀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뻐했다. 주님의 은혜였다.

장로합창단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새사람사역팀의 남정진 장로님이 여주교도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대일 제자양육에 대해 소개하면서 같이 섬겨줄 것을 권유하셨다.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주교도소에서 일대일 제자양육을 섬기게 되었다.

소망동산 형제들을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준비교정부터 큰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은 재소자들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의의 길로 인도했다. 매주 목요일 하루 동안 삶을 나누는 과정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다.

여건상 일대일이 어려웠다. 일대이 혹은 일대삼으로 만날 수밖에 없었다. 오전과 오후 각 한 과정

씩 말씀을 전하고 삶을 나눴다. 그러다보니 집중력이 조금 떨어졌다. 그러나 주님이 일하시면 달랐다. 동반자 세 사람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어려운 점이 또 있었다. 동반자 세 명 중 한 형제가 경찰의 추가 기소로 교도소 생활이 연장될 수 있는 상황에 봉착했다. 그 형제는 자기중심적 기복신앙으로 추가 기소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형제에게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주시길 것이라고 격려하는 것뿐이었다. 결과가 어떠하든지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결과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2주 후 그 형제의 추가 기소 문제가 무혐의로 처리되었다는 소식을 통보받았다. 할렐루야! 주님의 역사에 감사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주님의 역사로 그 형제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주님은 산만했던 그 형제가 성경공부에 대한 학습 태도를 바꾸고, 집중력과 열정을 갖게 하셨다. 다른 두 형제들도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면서 좋아했다.

■ CGNTV 선교헌신자 간증



나의 서원기도

/ 양웅모 형제(CGNTV 편성제작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말년 휴가를 받아 집에 갔다. 그런데 제대를 앞두고 집에 간 나를 기다린 것은 어머니의 암 선고였다. 어머니는 암 3기를 지나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내 앞에 앉아 눈물을 쏟으셨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있던 내 마음도 무너져 내렸다.

당시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다. 그런 내가 어머니와 함께 잠자리에 들면 서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어머니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시키는대로 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완쾌되었다. 지금도 건강히 지내고 계신다.

훗날 하나님은 내게 그 때 내가 한 그 기도가 서원기도였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고난에서 건져주셨다. 그렇게 나는 다시 태어났다.

이끄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걷다보니 하나님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선교와 전도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복음을 전하되 어떻게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를 고민했다. 영상이 복음을 전하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하고 기독교 방송국을 찾다 CGNTV에 오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선교지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문인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길로 인도해주신 덕분이다.

하나님은 내게 미디어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나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셨다. 나는 무슬림들에게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고 싶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땅으로 달려가고 싶다.

그들은 지금 진리를 몰라 구렁이 속에 갇혀 있다. 이대로 있다면 심판의 불로 들어갈 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여기에 있다고 외치고 싶다. 그렇게 살고 싶다.

매일 내가 눈감을 때마다 “사랑한다. 너는 잘 될 거야”라고 말씀해주시는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한다.



장로칼럼 원우현 장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생명의 물줄기

앞전에 감리교 탈북민 목회자 제1호인 강철호 목사가 시무하는 새터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나는 배홍일 목사가 섬기는 탈북자 사역지 ‘한터’에서 매주 예배 후 순모임을 한다. 언젠가 탈북 강철용 형제가 했던 ‘목사 동생이 있다’는 얘기를 귀담아 들었다. 평소엔 탈북자인 목사가 설교하고 새터민이 안네, 기도와 찬양을 하며 자립, 자조하는 교회에 가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많은 한국교회에서 탈북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섬기고 있는데 아쉽게도 탈북민들이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 되고 있다. 새터교회 주보에 ‘섬기는 교회’라는 표어가 눈에 띄었다. 여러 면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 교회가 오히려 섬김을 최우선으로 삼아 놀랐다. 그날은 온누리교회 부목사가 설교했다. 나는 아무도 모르게 참석했는데 소개 시간에 ‘낮은 곳’을 찾는 믿음의 발걸음이 한자리에 모인걸 알았다. 요셉공동체 청년들과 온누리신문 기자, 선배 교수들을 우연히 만났다.

‘낮은 곳’은 세상 기준일 뿐, 예수님이 항상 계시고 사랑의 물줄기를 대놓고 계시는 한장이기 때문이다. 성스럽고 구별된 ‘드높은 성소’다.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며 믿음의 작은 발걸음이 만났고, 바로 새터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처소임을 서로 공감했다. 교회의 3요소는 영성, 교제, 섬김이다. 사회의 낮고 외진 구석을 향한 섬김(Diakonia)이 말씀이나 교제에 못 미치는 한국교회를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 험준한 세상에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그늘진 현장에 뛰어들어 조건 없이 봉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찾기 힘들다는 세평에 주목해야 한다.

그보다 교회 직분을 오용하여 사회바리새건

에 연루되어 지탄의 대상이 되고 비신자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판국이 됐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조건 없이 헌신할 수 있는 기독교인의 긍지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올해 온누리교회 표어는 ‘낮은 곳 더 낮은 곳’이다. 온누리교회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구석지고 소외된 곳을 향해서 사랑과 관심을 집중하려는 다짐이다. 새롭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차 안 가지고 오는 주일’을 정한 것도 작지만 위력 있는 실천 방안이다. 온누리교회는 수많은 행사마다 깃발을 들고 탁월한 기획과 CGTV 홍보로 효율성을 극대화해 온 특성을 누렸다. 낮은 곳으로 향할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작은 물방울이 흘러 흘러 서로 만나면 강물을 이룬다. 소외된 지역에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작은 자’들을 인격대 인격으로 신실하게 섬길 때 열매가 풍성할 것이다. 폭포수나 강물 같은 큰 물줄기는 화려한 풍경을 뽐내면서 주변에 영향력을 과시하며 힘차게 달려갈 수 있다. 하지만 작은 물방울이 이룬 물줄기는 천천히 낮게 흐르며 큰 물줄기가 빨리 달리느라 놓치고 마는 구석을 어루만지고 적시며 영적인 호흡을 주고받는다. 그리고 어디선가 또 다른 물줄기와 합류하여 동역자와 함께 가는 기쁨과 감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온누리교회가 보다 겸손한 자세로 ‘더 낮은 곳’을 향하는 동시에 교인 각자의 발걸음은 나누어 사회 구석구석에 흘러가길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거듭나며,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물줄기가 될 수 있길 기원한다.

“한 시대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시 46:4).



권사칼럼 김화인 권사

항상 보고 싶을 또 하나의 가족들

나는 사람을 좋아한다. 새로운 사람을 알아 가는 것도 참 좋다. 교회에서 받아본 퍼플 퍼즐(People Puzzle) 세미나와 은사배치 세미나 같은 개인성향테스트에서도 사람중심 성향이 뚜렷이 드러난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곳에 있든 사람의 감정과 마음에 관심이 간다.

나는 모태신앙으로 교회생활을 했으나 학창시절과 20대에는 주일만 지키는 신자로 살았다. 성령의 체험이 무엇인지,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다녔다. 1988년 온누리교회에 오기 전까지 그리고 하 목사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온누리교회에 나간 그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첫 순장님은 동경 온누리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셨던 장재운 목사님이셨다. 교회를 통해 순을 통해 부모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매주 한 번씩 만나는 순식구들은 일주일의 생활을 나누는 가족 같은 관계가 되었다. 나는 늘 몸이 약했다. 특히 위가 약했다. 지금도 그때 집사님이셨던 장재운 순장님께서 해주신 기도 가뭇가에 생생하다. “김화인 집사의 위를 강철과 같이 튼튼하게 해주십시오”

그 뒤 4-5년간 이촌동에서 순예배를 드리고 남편과 함께 미국연수를 다녀온 후에는 몇 년간 건강해진 내 위를 보며 그때 순장님의 기도 응답이라 믿게 되었다. 그리고 1998년부터 지금까지 강남A공동체를 섬기고 있다. 남편이 순장을 하면서 알게 된 새 식구들, 그리고 지금의 순식구들까지 모두가 내 삶에 또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 예전 순식구들은 공동

체 리더로서 각자의 손을 섬기며 떨어져 있다. 그렇지만 좋은 일, 힘든 일 모두 스스럼없이 나누고 보고 싶은 사람들이다. 순을 통한 사랑과 관심은 교회 안은 물론 밖에서도 큰 행복이 될 수 있다.

온누리교회에 와서 20년 이상 부부순을 섬기다가, 5년 전부터 우리 공동체 자매들끼리 낮에 순예배를 드리는 햇살다락방에서 한 순을 맡게 되었다. 남편이 안 믿거나 순예배를 같이 드릴 수 없어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자매들을 만나게 되면서 처음에는 걱정이 앞서기도 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핍박이나 영적인 외로움이 뭔지 잘 모르는 내가 ‘그아픔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 하고 망설여지기도 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를 갖기로 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 새로운 즐거움이 가득했다. 어릴 적인상 깊게 보았던 ‘초원의 빛’이라는 영화에 오래만에 만난 여고 동창생들끼리 팔짱팔짱 뛰며 좋아하던 장면이 있다. 마치 그 영화 속 동창모임과 같은 순예배였다. 나이는 서로 달랐지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이제 또 다른 사역을 위해 햇살순을 떠나지만 항상 보고 싶을 또 하나의 가족들이다. 일대일로 만난 동생 같은 자매들, 권사님들, 기도와 위로가 필요할 때 오고 가는 마음들까지.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인맥관리에 바빠서 행복하다. 날이 갈수록 나의 영적인 인맥은 풍성해질 것이다.



신앙에세이 안광목사(남양주 온누리교회)

관광(觀光)하는 삶

만물이 봄의 도래(到來)를 알리고 있다. 산마다 들마다 봄으로 몸부림치고 있다. 봄의 생명력이 사람들을 산으로 들로 유혹한다. 차가 밀리고 막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람들로 치이고 바가지질 써도 괜찮다. 사람들은 저마다 화사한 옷을 차려입고 관광버스에 몸을 실어 산으로 들로 떠난다. 그러나 그들은 알까? 그들이 왜 자연을 향해 그렇게 떠나야만 하는지를? 왜 그토록 관광하고 싶어 하는지를?

성서적의 〈인간적이다〉라는 단편 소설집에 보면 ‘뒤집어쓰고 도 남을 물’이라는 짧은 단편 소설이 나온다. 그 소설의 내용은 사막의 장관인 일출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막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것으로 시작된다. 사막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중동의 한 국가는 사막에 텐트형 리조트를 만들었다고 한다. 또한 리조트를 멋지게 꾸미기 위해서 잔디를 심었다고 한다. 그 잔디가 죽지 않게 하려고 아프리카 아이들이 1년 동안 먹을 물을 하루 동안 사막에 뿌리는 이야기를 하며, 인간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를 꼬집는다.

“사막에서 가장 매혹적인 게 해가 뜨고 지는 광경이라지요. 어느 관광객은 사막에서 떠오르는 해를 본다는 것이 참 색다른 경험이라서 오히려 휴가기간 내내 여기 사막에 머물러야 하겠다고 합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는 게 진정한 관광(觀光)일 테니까요”

왜 사람들은 산에 간다고 하지 않고 바다에 간다고 하지 않고 관광(觀光)하러, ‘빛을 보러’ 간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단지 일출을 보러 간다는 것만을 의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빛을 잃어버린 것이다. 매일 쳇바퀴 돌 듯 살아가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사라져 버린 그 빛을 찾기 위해 떠나는 것이다. 내 삶의 언저리에는 없으니 저 먼 자연 어딘가에는 있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떠나는 인간의 공허한 마음을 담은 말이다. 사람들이 정말 보기 원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시들어져버린 삶의 빛이다. 생활의 빛이다. 그 빛을 찾기 위해 산꼭대기에도 올라가 보고, 바다 끝에도 가보는 것이다.

사람은 빛이 필요한 존재다. 절대적으로 빛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에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산이나 들이라도 가야만 한다. 그래야만 살 수가 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요 1:1-5).

글렌 존스라는 문학가는 “가까이에 있는 불빛을 끄면 멀리 있는 불빛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말한다. 빛은 우리와 늘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불빛이 너무 많아 빛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 빛을 찾아서 멀리 떠나는 것은 아닐까? 이번 한 주 빛을 찾아 어렵사리 관광버스에 몸을 싣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그 빛 앞에 나아가 진정으로 관광(觀光)하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한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고운 베실이 있는가 하면 염소털도 있습니다. 재료가 모두 중요하지만 차등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가치가 다릅니다. 안쪽으로 갈수록 귀한 재료가 만들어졌고, 바깥에는 상대적으로 덜 귀한 재료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인 동시에 우리 마음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룩함의 길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희생제가 있습니다. 죄악 된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번제단에서 피 흘려 죽는 제물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면서 성막에서 수없이 많은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죄악 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감동이 없는 것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을 가르칠 때 레위기부터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은 왜 딱딱하고 재미없는 제사 제도들을 먼저 가르칠까요. 성막에서 드러지는 많은 제사들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희생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감격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를 뼈저리게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막과 제사 제도를 통해 우리가 합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휘장이 막혀 있는 것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벽이 허

물어짐으로써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성막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몇 십 미터 거리입니다. 바로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그렇게 원하시는데 왜 만날 수 없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막 위의 구름기둥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

셋째, 하나님은 성막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게 하셨습니다. 성막의 모든 구조물들은 이동할 수 있는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법궤입니다. 거기에는 모세의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법궤도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할 수 있도록 채가 달려 있어 언제든지 들고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번제단도 판넬로 만들고 걸을 도금했습니다. 쉽게 들 수 있을 정도로 가볍습니다. 테두리도 분리해서 운반할 수 있도록 조립식이었습니다. 장막을 이동식으로 만든 이유는 하나님이 장막을 통해 백성들의 중심에 거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려는 것입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동행하시면서 뒤따라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쳤습니다. 여호와와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고 여호와와 명령을 따라 진을 쳤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들은 진을 치고 머물렀습니다”(민 9:17-18).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기둥으로 임재했습니다. 성막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막 위를 보고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땅을 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위를 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성막 위에 임한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입니다. 때로는 1년 동안 머물러 있을 때도 있고, 며칠 만에 이동할 때도 있었습니다. 성막의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여야 했습니다. 어느 한곳에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순례자입니다.

“이틀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 이스라엘 자손은 집에 머무르고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민 9:22).

왜 하나님은 백성들이 움직이도록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따라 가면 가고, 머무르면 머무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막 위의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막 위의 구름기둥을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막이 중앙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동성 있게 만든 이유도 그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죄가 완전히 없어지고, 휘장이 찢어져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늘 자원하는 성령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단순 거주자가 아니라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지배자로서 거하시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Talk Talk 열왕기 최원준 목사(강동 온누리교회)

열왕기 6 : 솔로몬의 영광과 들의 백합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웃보다 더 고운 백합화.”

아외 예배에 나가면 자주 부르는 찬송이다. 주님이 지으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말하는데 백합화와 솔로몬의 웃을 비교하고 있다. 이 찬송가 가사는 마태복음 6:28~30(눅 12:27~28)에 근거한 것이다. 여기서 백합화는 꽃가게에 있는 예쁜 백합화가 아니라, 갈릴리 지방에서 봄철에 흔히 볼 수 있는 야생화다. 흔하고 비천한 꽃이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꽃”(마 6:29)에 불과하다. 이런 백합화가 어떻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보다 나은 수 있단 말인가?”

솔로몬의 영광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솔로몬 통치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왕상 4:20)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다(창 22:17). 또 그의 영토는 남쪽 이집트 북경에서부터 북쪽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기까지 이르렀는데(왕상 4:21), 이 역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다(창 15:18).

어디 그 뿐인가? 솔로몬의 부귀는 차고 넘쳤다. 솔로몬이 해마다 거둬들이는 금의 무게는 무려 666달란트였다. 약 40톤에 해당한다. 24k 금 한 돈이 3.75g이니, 666달란트는 금 1070만돈 가량 된다. 금 한 돈이 대략 19만원이므로, 금 666달란트는 2조원이 넘는다. 솔로몬은 이 금으로 방패 500개를 만들고, 상아로 큰 왕좌를 만들어 여기에 순금을 입혔다. 그의 술잔과 그릇도 모두

금이었다. 은은 취급도 하지 않았다.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은이 돌처럼 흔하게 됐고, 최고의 재목인 백향목은 흔한 뽕나무처럼 많았다.

이처럼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대단했는데, 어떻게 들의 야생화가 더 낫단 말인가?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이다. 들의 백합화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백합화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다. 솔로몬의 부귀 영화는 부지런히 벌어들인 것으로 이뤄졌다. 그는 금을 거둬 들이고, 조공을 거둬 들였다. 이것으로 자신이 사는 왕궁을 가장 화려하게 치장했다. 솔로몬의 부귀는 도를 넘어섰다. 사치의 절정을 보여줬다. 그는 무역선들을 가동시켜 3년에 한 차례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나르게 했는데(왕상 10:22), 한 번에 3년이나 걸릴 만큼 무역선들이 먼 곳까지 가서 사치품들을 가져온 것이다.

또한 솔로몬은 넘치는 부를 가지고 전차와 말들을 모아 군사력을 키웠다. 왕이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말하겠지만, 신명기 17:16~17에 따르면 하나님은 병마와 아내와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병마가 나라를 지켜준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인 아내가 가져온 우상을 섬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은금으로 내 인생을 치장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집트산 말을 수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입

한 전차와 말을 가나안 헷 사람들과 아람 사람들의 왕들에게도 팔았다(왕상 10:29). 일종의 무기 수출업을 한 것이다. 솔로몬의 통치 후반기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이웃 나라와 관계를 잘 하여 이룬 평화가 아니라 거둬들이고, 사치를 찾아다니고, 무기를 되파는 일을 통해 이룬 평화, 즉 전형적인 제국주의적 평화처럼 보인다. 그러나 인간이 이룬 평화는 오래가지 못하는 법. 솔로몬 시대의 부귀영화는 40년 만에 막을 내린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 인생의 허무함을 말했는지도 모르겠다.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이 직접 임혀줄 것을 믿기에 아무 염려 없이 피었다. 지는 저 들의 백합화가 솔로몬의 모든 영화보다 더 아름답고 귀하게 보였다. 예수님의 눈에는 공중에 나는 새가 더 귀했다. 공중에 나는 새는 솔로몬처럼 거두지 않고 모아들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직접 기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권면하신다. 솔로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신다.